

# “학원보다 부실한 원격수업” 학력격차 심화...불만 폭주

유튜브·녹화 등 짧게는 10여분 불과  
수업 질 하락에 성적 하락 걱정  
학부모들 “학교 준비 안하고 뭐했나”  
교육부 “쌍방향 수업 시행하겠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대다수의 학교가 등교수업과 함께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업의 질 하락에 따른 학력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교육당국이 길어지는 원격수업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실시간 쌍방향 방식의 수업 확대를 예고하자 교원단체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지역 교육청 등에 따르면 일선 학교의 원격수업 방식을 쌍방향형으로 개선해 수업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 교사나 외부강사가 강의를 녹화한 영상이나 유튜브 등을 틀어주는 콘텐츠형 보다 집중도가 높고 대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쌍방향형을 선호하고 있다. 실제로 쌍방향형 원격수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학교나 수업은 극소수에 그치기 때문이다.

특히 콘텐츠형 수업이라도 학생이 집중해서 듣는다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영상을 틀어놓은 이후 자리를 비워두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탓에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을 실정이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침에 화상으로 출석체크하는 것은 좋은데, 이후에는 EBS 온라인 클래스로 영상만 틀어줘서 휴대전화를 달고 사는 아이가 혼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쌍방향 수업을 받는 친구들보다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영상 시청 시간이 수업시간(40~50분)에 비해 짧

고 기능이 취약한 것도 불만의 원인이다.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영상을 보고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인데 9시부터 빨리감기로 몰아서 보고만 짓하는 것을 보고 혼난 적이 있다”며 “짧은 것은 10여 분에 불과해 차라리 학원을 보내야 하나 걱정된다. 공교육이라는 학교가 학원보다 준비가 안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를 둔 학부모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학교마다 다른 수업방식으로 인해 학력격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관리와 대책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한다.

한 학부모는 “1학기 때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과 달리 준비 여력이 있었던 2학기에 쌍방향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준비가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원격수업 기간에는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쌍방향 방식으로 조·종례를 진행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 원격수업을 관리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교원단체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논평을 내고 “교사들이 학생·학부모와 대화를 늘리고 소통을 강화하는 수업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합당한 채우듯 특정 수업 비율을 강요하는 정책은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쌍방향 수업의 장점이 많아 교육부와 함께 개선을 고민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 일정 비율 이상 시행하라고 강제하기 어렵다”며 “교과목이나 교사들의 성향이 다르고, 교사들의 IT 활용능력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노점상에도 재난지원금 지원해달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광주지역 노점단체들이 17일 광주시청앞에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점상도 사회의 구성원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을 평등하게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내년 광주인권상·특별상 후보자 30일까지 공모

5·18기념재단은 오는 30일까지 ‘2021 광주인권상’과 ‘광주인권상 특별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17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인권상 후보자 자격은 민주주의 발전, 인권증진 그리고 평화를 위해 헌신해 온 개인 또는 단체다. 광주인권상 특별상은 문화·예술·언론·학술 분야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기여한 이사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후보자(단체)는 스스로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으며, 동일한 단체에서 소속 인사를 추천할 수 없다.

시상식은 매년 5월18일 5·18기념문화관에서 개최된다. 하지만 올해 시상식(수상자 벵조 운동·Bedjo Untung, 인도네시아 인권활동가)은 코로나

19로 인해 연기돼 다음달 27일 5·18기념문화센터 1층 민주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금(미화 5만불)과 상패가 주어지고, 수상자 기념 브론즈는 5·18기념재단 5·18기념문화센터 리셉션 홀에 전시된다.

후보자 추천서는 이메일(gwangjuiprize@gmail.com)과 우편을 통해 접수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5·18기념재단 국·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유신 무효” 지학순 주교 46년만에 긴급조치 위반 무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성명을 발표해 옥살이를 겪은 고(故) 지학순 주교가 4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7일 지학순 주교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 혐의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특수공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1·2·4호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며 “입법의 목적이나 정당성이 적절하지 않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 주교가 과거 주교 제한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밖에 나가려다 공무원을 밀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다시 실체판단을 할 수 없어 원심이 따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히며 집행유예로 감경했다.

지 주교는 1974년 ‘유신헌법 무효’ 양심선언을 발표하고 체포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 받았지만, 고(故)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종교계의 대대적인 시위로 이듬해 2월 석방됐다. 지 주교는 1993년 작고했다.

이후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첫 판단을 내놓은 후 4호, 9호 등 위헌 결정이 잇따랐고 검찰은 2018년 지 주교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 조대 장미의 거리·남광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선정

### 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조대 장미의 거리와 남광주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 지역상권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17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조대장미의 거리’, ‘남광주시장’ 등 2개소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조대 장미의 거리는 향후 2년간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상인 조직력 강화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링 ▲장미 테마 벽화 골목길 조성 ▲추석의 박물관 조성 ▲조대 미대와 연계한 창업 체험 공간 조성 ▲리마인드 스킨 제품 발굴 사업 등이 진행된다. 조대 장미의거리 상점가를 광주를 선도하는 ‘대

학연계형 문화관광 플랫폼’으로 탈바꿈해 나간다는 게 동구의 설명이다.

남광주 시장은 올해로 2년 연속 선정되면서 문화관광형사업으로 9억 2000만원,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4900만 원을 확보했다.

또 남광주해뜨는시장은 시장경영 바우처지원사업 선정으로 6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동구는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남광주시장 수산물 축제 ▲온라인 상거래 육성 등 남광주시장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지역시장 기능은 물론 명품 관광형전통시장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지스트, 중기부 테크브릿지 활용 기술 개발사업 선정

### 임태중·손익부 박사 연구팀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의 임태중·손익부 박사 연구팀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중기부는 대학·연구소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기술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를 1차로 31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향후 2년간 최대 8억 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선정된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게 될 대학·연구소는 공동

개발기관으로 선정 기업의 기술개발에 참여해 이전기술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개발을 함께 하게 된다.

지스트 고등광기술연구소는 ▲반도체 금속 박막 측정 장비용 비파괴 레이저-초음파 계측 기술 개발(연구책임자: 임태중 박사)과 ▲소형 레이저 스캐너 및 고속 정밀 가공 장치 개발(연구책임자: 손익부 박사) 등 총 2개 과제가 선정됐다.

임태중 박사 연구팀은 그동안 국내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해외기업에 의존해 왔던 수십 나노미터에 불과한 금속 박막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레이저 기술을 반도체 공정 장비의 개발 활용에 나선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관 역사자료 수집

유은총동문화 및 동문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는 2021년 5월 26일에 100주년 기념관 개관에 맞춰 14만 동문들의 소중한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100년사 연감 제작을 위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은가족 및 동문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학교 및 교육 발간 책자

- 학교 교사(校史), 학교 요람, 학교연혁지, 교육계획서, 학교문집, 교육활동철
- 새교육 등 교육관련 각종 잡지, 학교 신문, 교지, 학교 발행 간행물 등
-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부교재 등

### 기록자료

- 사진, 회화, 앨범, 영상자료, 졸업식, 입학식, 운동회 등 각종 행사 사진 및 자료
- 학교 배경의 개인 기념 사진이나 그림, 졸업 앨범 및 우승 트로피, 메달, 상장
- 학습지도안, 학급경영록, 시험지 및 답안지, 성적표, 통지표, 학교일지 등

### 학교 물품과 서류

- 졸업장, 수료증, 급여 봉투, 고지서, 영수증
- 학교 상징물, 교기, 교가, 교훈, 배지, 상장함, 깃발
- 각종 교구 및 기자재, 타자기, 초기형 컴퓨터, 환등기 등
- 운동회 용품, 호루라기, 매스게임 물품, 모의 슈류탄 등

### 학생물품

- 교복, 체육복, 교련복, 이름표, 모자, 가방, 주산, 학생증, 교표, 도서관 대출증
- 도시락, 일기, 방학생활, 학급 문집, 동아리 문집 등
- 기타 자료 등

**접수처**  
광주동성고등학교(광주상고) 행정실 062)670-4512, 광주여자상고등학교 행정실 062)670-4532

**광주동성고(광주상고), 광주여상고, 광주동성중, 광주동성여중**  
**학교법인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사업회**